

# 농어촌공사, '재해 없는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입증

###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위험요인 사전 발굴·선제 대응 등 실효

한국농어촌공사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체계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KRC-EVERY 안심일터' 전략을 수립·실행했다. 인공지능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으며 소규모 현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안전 조치도 함께 추진했다.

사람 중심의 확고한 안전경영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김인중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람 중심의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발족과 더불어 전국 부사장 토크회에서 '안전 리더십'을 선언하는 등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 화순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호응 지역 기관·단체 등 접수받아 11월까지 운영

화순군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주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은 2.4배 높아지며, 뇌 기능 회복률은 3.3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의 기본 이론,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실제 상황 대비 역할극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화순군 지역 주민과 관내 직장인, 기관·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북부경찰,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 실시

### 꼬리물기·무단횡단 금지 안내

광주 북부경찰청은 11일 북구 신원동 신원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교통 기초질서 확립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며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 질서 자율 준수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호남권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 전남·광주·전북·제주 공동 진단·연구 성과 등 공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호남권 공공기관과 함께 감염병 진단·분석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권역 단위 공동 대응 기반을 다졌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026 호남권 공공기관 감염병 진단·분석 협의체'를 열어 감염병 진단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026 호남권 공공기관 감염병 진단·분석 협의체'를 열어 감염병 진단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남·광주·전북·제주 보건환경연구원 부서장과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감염병 진단·분석 성과를 공유하고 권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성과 발표도 이어졌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호흡기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을 통한 유행 양상 및 특성 연구'를 소개했고, 광주시는 '노로바이러스 중합효

소 분석을 통한 유행형 다양성 연구'를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메타지노믹스를 활용한 전북 야생 설치류의 감염병 병원체 보유 실태 연구'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카바페뎀 내성 장내세균(CRE)의 특성 연구'를 각각 공유하며 권역 간 연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권역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 기관들은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양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에 발맞춰 호남권 방역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권역 간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창립 15년 기념...소아암 환아 의료비 전달

### 광주문화재단,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금 80만원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총 8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날 기부행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은 전액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배동한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재단의 15주년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금 80만원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1월 24일)

48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과 여행은 금물  
60년생 알다시피 두 말하면 진소리  
72년생 같은 화려하나 남 모르는 근심 있는 날  
84년생 나간 것은 들어오고 새 것도 얻는다  
96년생 이성과 불화 있으니 테이트 미루자

51년생 협력자를 만나 좋은 결과가 있겠다  
63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다  
75년생 경쟁자에게 비밀 누설을 조심하라  
87년생 뒷사람과 시비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99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4년생 배우자와 의논하면 큰 도움이 될 것  
66년생 오늘은 근심할 때  
78년생 가까운사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90년생 미리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57년생 지인과 갈등을 겪을 것이니 경계하라  
69년생 좋은 일이 생길 심마리가 조성된다  
81년생 돈이 막히는 날  
93년생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49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진다  
61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73년생 병이 되니 할 말은 하라  
85년생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9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52년생 그것도 그것이니 비교하지 말라  
64년생 완강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  
76년생 소신대로 일을 처리하면 우리가 없다  
88년생 친구들과 불화가 생겨 애로가 많을 것

55년생 예상 못한 상황에 기막히겠다  
67년생 부주의로 어려운 길에 놓일 수 있다  
79년생 공허로운 돈 탐내지 마라  
91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잘 돼 가고 있으니 변경하려 들지 말라  
70년생 용감하게 추진한다면 득이 많을 것이다  
82년생 황재 수. 그러나 요행은 금물이다  
94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된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지갑에 많은 돈 넣고 나들이 가지 말라  
62년생 말을 반으로 줄이면 금전 손해가 없다  
74년생 세심하게 살펴야 안전 할 수 있다  
86년생 사전에 휘말려 중대한 거래 놓치지 마라  
98년생 지인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53년생 아랫사람은 해로우니 친절 베풀지 말라  
65년생 쉽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것  
77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히라  
89년생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다

56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68년생 결과 속이 꼭 찬 모습이라 할 수 있다  
80년생 사업은 부진하니 수산업에 투자하라  
92년생 먼저 정한 바를 고집하라

59년생 경사스런 일이 겹칠 수도 있는 날  
71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  
83년생 물 고갈프니 마물도 외롭구나  
95년생 열심한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